

역기능적 태도, 생활사건, 자동적 사고와 편집증 및 우울의 관계*

이 훈 진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태도와 자동적 사고, 생활사건경험, 그리고 자기개념이 편집증과 우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대학생 331명에게 역기능적 태도 척도, 자동적 사고 질문지, 생활사건경험질문지, 편집 척도, Beck 우울척도, 자기개념 척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동적 사고와 자기개념은 우울, 편집증 모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나, 자동적 사고의 경우 편집증보다는 우울증에서 관련성이 높았다. 생활사건 경험의 경우 우울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역기능적 태도는 우울보다는 편집성향과 관련이 높았다. 역기능적 태도의 중재가설은 우울, 편집 모두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정도가 미약했고, 자동적 사고의 매개가설은 우울증에서만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우울증과 편집성향(피해의식)은 현대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이며, 정신병리적으로도 가장 많이 보고되는 증상이다(이정균, 곽영숙, 이희, 김용식, 한진희, 최진옥, 이영호, 1986; APA, 1994; Fenigstein, 1994; Manschreck, 1996; Robins, Helzer, Weissman, Orvaschel, Gruenberg, Burke, & Regier, 1984). 그렇지만 선행 연구들은 우울증 연구에 주로

치우쳐 있으며, 특히 편집증상과 우울증상의 관련성을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다. Bentall, Kinderman 및 Kaney(1994), Candido와 Romney(1990), MacKinnon과 Michels(1971), Zigler와 Glick(1988)은 편집증과 피해망상에 초점을 두고 우울증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거나 면접 및 치료지침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우울과 편집증(피해망상)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림대학교 지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보았으며, 편집증이 위장된 우울의 한 형태이거나 우울과 편집증이 같은 원인(즉, 불쾌한 기분이나 낮은 자존감)에서 시작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우울증과 편집증의 핵심 차이는 귀인양식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설은 Candido와 Romney(1990), Fear, Sharp 및 Healy(1996), Kaney와 Bental(1989, 1992)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검증되었고, 이훈진과 원호택(1995b), 이훈진(1997), 원호택과 이훈진(1997)에 의해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편집성향과 우울증은 공통적으로 부정적 자기개념과 낮은 자존감을 원인적 요인으로 가지며, 편집성향과 피해망상은 극단적인 방어적 귀인과 관련되고, 우울은 극단적인 자책적 귀인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핵심적 차이가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Chadwick과 Trower(1996)는 편집증을 피해망상형과 처벌형(punitive paranoia)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전자는 극단적인 방어를 보이고, 후자는 방어없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편집증이 우울의 동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는 증상임을 시사한다. 이는 이훈진(1997)의 연구에서도 검증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발견은 우울증과 편집증이 자기개념, 귀인 등의 변인에서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두 증상 모두 인지적 접근이 유용함을 시사한다.

우울증의 경우 그 인지적 변인으로 주로 고려되어 온 것은 역기능적 태도, 자동적 사고, 귀인양식 등이다. 특히 역기능적 태도와 자동적 사고는 Beck의 인지이론(Beck, 1967, 1976; Beck, Rush, Shaw, & Emery, 1979)에서 핵심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울증의 인지적 취약성 요인으로 가정되었다. 역기능적 태도는 우울증의 중재변인(moderating variable), 자동적 사고는 매개변인(mediating variable)으로 가정되었고, 많은 연구들(원두리, 1992; Barnett & Gotlib, 1990; Kuiper, Olinger, & Martin, 1988; Kwon, 1992; Olinger, Kuiper, & Shaw, 1987)이 역기능적 태도의 중재효과를 입증하였다. 물론 갈등적 결과들도 있지만(예를들면, 김은정, 오경자, 1994; Robins & Block, 1989; Robins, Block, & Peselow, 1990). 역기능적 태

도가 우울증의 중재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설은 현재까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자동적 사고의 매개가설도 많은 연구들(Beck, Brown, Berchick, Stewart, & Steer, 1990; Beck, Steer, Kovacs, & Garrison, 1985; Kwon, 1992; Stiles & Götestam, 1989; Teasdale & Fennel, 1982)에서 검증되었다. 이러한 매개가설은 Abramson, Alloy 및 Metalsky(1988)의 가정에서도 시사된 것이다. 최근에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개인의 반응차를 이 두 변인의 수준 또는 이 변인들의 수준과 스트레스 사건 빈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Hammen, Ellicott, Gitlin, & Jamiso, 1989; Hewitt & Flett, 1993; Metalsky, Halberstadt, & Abramson, 1987; Miller, Horman, & Keitner, 1990; Robins & Block, 1988; Segal, Shaw, Vella, & Katz, 1992; Simons, Gordon, Monroe, & Thase, 1993; Spanger, Simons, Monroe, & Thase, 1993, 1997). 물론 Miller 등(1990)의 연구는 스트레스를 고려하지 못했고, Spanger 등(1997)은 가설 검증에 실패하는 등 결과는 아직 갈등적이지만, 치료 반응의 개인차가 단순히 우울증의 이질성(heterogeneity) 때문이라는 설명들(Katsching, Pakesch, & Egger-Zeidner, 1986; Thase, Simons, & Reynolds, 1996)보다는 훨씬 정교화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편집증과 우울증은 많은 공통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기개념과 자존감, 귀인양식이 두 증상의 공통요인과 변별요인으로 검증되어 왔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우울증의 경우 역기능적 태도와 자동적 사고가 Beck의 인지이론에서 핵심 개념으로 도출된 이후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편집증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진대로 편집증이 우울증에서와 같이 부정적 자기개념과 낮은 자존감을 원인적 요인으로 갖는다면, 역기능적 태도와 자동적 사고가 편집성향과 관련될 가능성이 많다. 우울증과 편집증이 부정적 자기개념이라는 공통요인과 귀인양식에서의 차이라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므로,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설명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해 온 자동적 사고와 역기능적 태도가 편집증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은 우울증과 편집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외적으로 우울증과 편집증을 함께 고려한 연구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역기능적 태도와 자동적 사고가 두 증상과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는지 비교 연구한 경우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앞으로 우울증과 편집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의 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편집증을 우울의 동반여부에 따라 구분한 이훈진(1997)의 연구와 편집증을 피해망상형과 처벌형으로 구분한 Chadwick과 Trower(1996)의 연구를 재검증하기 위해 집단구분을 통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집단

연구대상집단은 대학생 331명이었으며, 남자 151명, 여자 180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1.01세였다.

도구 및 절차

1) 편집 척도(Paranoia Scale).

편집증적 경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훈진과 원호택(1995a)이 제작한 척도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α)는 대학생 집단 .88, 정신과 환자집단 .92였으며, 교정된 문항 총점과 상관은 각각 평균 .49와 .59였다. 대학생 118명을 대상으로 구한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이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단일요인을 시사하였고, 정상인 통제집단과 편집 환자집단, 비편집 환자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각 문항은 0점에서 4점까지의 5점 척도로 채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8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편집성향

이 강함을 의미한다.

2) 자기개념 척도(Self-concept scale).

이훈진(1997)이 제작한 척도로, 자기(self)의 특정 하위 속성(attributes)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며, 신체, 도덕, 성격, 사회, 가정, 능력 측면의 자기개념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영역별 문항 수는 5문항으로, 총 30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이 긍정적인임을 의미한다. 이훈진(1997)이 보고한 내적합치도(α)는 .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와 상관은 .80이었고, 의미미분법을 사용한 서수균(1996)의 자기개념 점수와는 .74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3) 역기능적 태도 척도(Dysfunctional Attitude Scale-Form A: 이하 DAS로 표기).

권석만(1994)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1(전적으로 반대) ~ 7(전적으로 동의)의 7점척도로 구성된 40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우울증의 인지적 취약성과 관련된 역기능적 태도를 측정한다고 알려져 있으며(Dobson & Show, 1986; Oliver & Baumgart, 1985), Beck의 우울증 인지이론에 따른 우울증의 인지적 취약성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뢰로운 측정치이다(Robins & Block, 1989). 신뢰도와 타당도 면에서 보면 영문 원판의 경우 Dobson과 Breiter(1983)가 보고한 내적 합치도(α)는 .79~.93, 2~3개월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84였다. 우울집단 변별에 유용하고(Dobson & Show, 1986; Eaves & Rush, 1984), 치료 성공 여부와 재발 여부 예언력도 높았다(Hammen, Jacobs, Mayol, & Cochran, 1980; Keller, 1983; Rush, Weissenburger, & Eaves, 1986). 권석만(1994)에 따르면 한국판 DAS의 신뢰도는 내적합치도(α) .86, 반분신뢰도 .82였으며, 공준 타당도와 구성타당도도 비교적 높았다. 본 연구에서 구한 내적합치도는 .88, 반분신뢰도는 .86이었다.

4) 자동적 사고 질문지(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 이하 ATQ로 표기).

우울과 관련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부정적 자기 기술)의 빈도를 측정하는 척도로(Hollon & Kendall, 1980),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Kwon, 199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0(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판의 경우 충분한 내적 합치도($\alpha = .96$)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Harrel & Ryon, 1983; Hollon & Kendall, 1980; Hollon, Kendall, & Lumry, 1986). 한국판의 경우 Kwon(1992)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 .93, 반분신뢰도 .94, 본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 .94, 반분신뢰도 .92였다.

5) 생활사건경험 질문지(Life Events Experience Questionnaire: 이하 LEEQ로 표기).

이영호(1993)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47가지의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해 최근 3개월 동안 일어난 빈도를 '경험하지 않았다', '한번 경험했다', '두세번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열거되지 않은 생활사건을 기술할 수 있도록 5 문항이 추가되어 있다. 47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는 .88로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구한 내적합치도 계수는 .91 반분신뢰도는 .83이었다.

절 차

대학에서 심리학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331명에게 우울 척도, 편집 척도, 자기개념 척도, 역기능적 태도 질문지, 자동적 사고 질문지, 생활사건경험 질문지를 집단으로 나누어주고 완성하도록 했다.

분 석

척도간 상관과 부분상관을 구했으며, 편집 척도 총점과 우울 척도 총점을 종속측정치로 하고 자기개념 총점, 역기능적 태도 총점, 자동적 사고 총점, 생활사건 경험치 등을 예언변인으로 해 중다회귀분석을 하

였다. 그리고 매개가설과 중재가설의 검증을 위해 예언 변인과 종속측정치를 관련 변인에 따라 변경시켰으며, 회귀분석 방법을 변화시켜서 적용하였다. 부가적 분석으로 이훈진(1997), Chadwick과 Trower(1996)의 편집증 구분을 재검증하기 위해 편집 척도와 우울 척도 점수를 기초로, 편집, 우울, 편집-우울, 통제 집단을 선발해 집단차이 검증을 위한 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집단 선발 기준은 편집 집단은 편집 척도에서 상위 1표준편차 이상(34점 이상)이면서 우울척도에서 평균 이하(10이하)인 경우, 우울 집단은 우울 척도에서 상위 1표준편차 이상(18이상)이면서 편집 척도에서 평균 이하(24이하)인 경우, 편집-우울 집단은 두 척도 모두에서 상위 1표준편차 이상인 경우, 통제 집단은 두 척도 모두에서 평균 이하인 경우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두 척도 중 하나라도 하위 2표준편차 이하는 제외시켰는데, 이는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가 지나친 방어적 결과일 수 있다는 점과 그 역시 정상범위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점수임을 고려해서이다. 또한 통제집단은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가 다른 집단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일부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이 우울증과 편집증의 비교에 있으므로, 분석도 이 두 증상에 초점을 두었다.

결 과

1. 변인간 관련성에 대한 기초 분석:

상관 및 부분상관

역기능적 태도, 자동적 사고, 생활사건, 자기개념, 우울 및 편집성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 이들 측정치 간의 상관과 부분상관을 구하였다. 표 1에 각 측정치별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그들간의 상관행렬이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측정치들이 상호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우울과 편집성향의 경우 다른 측정치들과의 상관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우울의 경우 자동적 사고와의 상관($r = .72$)이 매우 높았고, 생활사건 경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행렬표

측정치	평균	표준편차	편집척도	우울척도	자동적사고	역기능적 태도	자기개념	생활사건 경험
편집척도	24.16	9.61						
우울척도	10.42	6.88	.46***					
자동적사고	26.84	15.71	.50***	.72***				
역기능적태도	140.36	24.20	.36***	.31***	.39***			
자기개념	108.88	13.59	-.41***	-.47***	-.51***	-.37***		
생활사건경험	21.96	14.63	.23***	.36***	.34***	.15***	-.19***	

** $p < .01$ *** $p < .001$

험치와의 상관($r=.36$)이 편집증의 경우($r=.23$)보다 높았다. 자기개념과 역기능적 태도는 두 증상과의 상관이 비슷했다. 그러나 이는 편집증과 우울의 높은 상관($r=.46$)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며, 따라서 두 측정치의 영향을 제거한 후의 상관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 상호상관의 효과를 제거한 후에 다른 측정치들과의 부분상관을 구했다. 그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우울점수의 영향을 제거하고 나면, 편집증과 생활사건 경험치와의 상관은 의미가 없었다($r=.06$). 이는 생활사건 경험과 편집성향간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우울 수준이 이 두변인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을 보면, 우

울의 경우 편집 점수의 영향을 제거한 상태에서도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이 비교적 높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동적 사고의 경우 .62의 상관을 나타냈으며, 생활사건 경험치와 우울과의 상관은 편집 점수의 영향을 제거한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36 → .30). 그러나 역기능적 태도와의 상관은 많이 줄었다(.31 → .14). 따라서 자동적 사고는 두 증상 모두와 관련되나 우울과의 상관이 더 크며, 역기능적 태도는 직접적인 관련성 면에서 우울보다는 편집성향과의 관련성이 더 컸다. 생활사건 경험치의 경우 편집증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며, 우울증과 직접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개념의 경우 두 증상 모두와 유의한 상관 및 부분상관을 나타내, 두 증상 모

표 2. 우울점수 통제 후의 부분상관행렬표

측정치	PS	ATQ	DAS	SCS	LEEQ
PS					
ATQ	.26***				
DAS	.29***	.27***			
SCS	-.26***	-.29***	-.26***		
LEEQ	.06	.13*	.05	-.01	

* $p < .05$ *** $p < .001$

PS=편집척도 ATQ=자동적사고질문지

DAS=역기능적태도척도 SCS=자기개념척도

LEEQ=생활사건경험질문지

표 3. 편집점수 통제 후의 부분상관행렬표

측정치	BDI	ATQ	DAS	SCS	LEEQ
BDI					
ATQ	.62***				
DAS	.14*	.25***			
SCS	-.35***	-.40***	-.24***		
LEEQ	.30***	.27***	.07	-.10	

* $p < .05$ *** $p < .001$

BDI=우울척도 ATQ=자동적사고질문지

DAS=역기능적태도척도 SCS=자기개념척도

LEEQ=생활사건경험질문지

두에서 주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정된 역기능적 태도, 자동적 사고, 우울간의 관계를 간접 검증하기 위해 자동적 사고의 영향을 통제하고 역기능적 태도와 우울간의 부분상관을 구한 결과, $r=.31(p < .001)$ 로 유의하던 상관인 $r=.03(n.s.)$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역기능적 태도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가 매개 또는 중재 역할을 한다는 한 증거이다.

2. 편집성향과 우울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 자동적 사고, 생활사건경험, 자기개념의 예언력

역기능적 태도, 자동적 사고, 생활사건경험, 자기개념이 편집중적 경향과 우울을 예언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변인투입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 5와 같다. 표 4를 보면 자동적 사고 총점이 편집 척도 변량의 25.32%를 설명해 예언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역기능적 태도가 4.54%, 자기개념이 1.92%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생활사건 경험치는 부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우울점수를 예언변인으로 먼저 투입하고 나머지 변인들을 함께 묶어 2차로 투입해, 우울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추가 설명력을 가지는지 알아본 결과, 우울이

22.97%를 설명한 데 더해 역기능적 태도가 6.59%, 자동적 사고가 2.67%, 자기개념이 1.01%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편집성향의 경우 역기능적 태도, 자동적 사고, 자기개념 모두 유의한 설명변인이었다. 변인간 상호작용 점수를 추가 투입해도 결과는 변화가 없었다. 우울의 경우,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동적 사고 총점이 우울 점수 변량의 50.84%를 설명해 예언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활사건경험치가 1.54%, 자기개념이 1.45%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역기능적 태도는 부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편집점수를 예언변인으로 먼저 투입하고, 나머지 변인들을 함께 묶어 2차로 투입한 결과, 편집 점수가 22.97%를 설명한 데 더해 자동적 사고가 29.88%, 생활사건 경험치가 1.32%, 자기개념이 0.94%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우울의 경우 자동적 사고의 설명력이 두드러졌으며, 생활사건 경험, 자기개념도 유의한 설명변인이었다. 변인간 상호작용 점수를 추가 투입해도 결과는 변화가 없었다.

이 결과는 편집증과 우울증이 자동적 사고와 자기개념이라는 공통 예언변인을 가지는데, 자동적 사고의 경우 특히 우울에서 예언력이 높음을 시사한다. 반면 역기능적 태도와 생활사건 경험은 두 증상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데, 역기능적 태도의 경우 편집

표 4. 편집성향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 자동적 사고, 자기개념, 생활사건경험의 예언력

예언변인	R	R ²	F	B	SE B	Beta	T
자동적 사고	.5032	.2532	106.15***	.21	.03	.34	5.97***
역기능적 태도	.5464	.2986	66.40***	.08	.02	.20	3.85***
자기개념	.5637	.3178	48.29***	-.12	.04	-.17	-2.96**

** $p < .01$ *** $p < .001$

표 5. 우울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 자동적 사고, 자기개념, 생활사건경험의 예언력

예언변인	R	R ²	F	B	SE B	Beta	T
자동적 사고	.7130	.5084	321.64***	.26	.02	.60	12.60***
생활사건경험	.7237	.5238	170.47***	.06	.02	.13	3.19**
자기개념	.7337	.5383	120.09***	-.07	.02	-.14	-3.12**

** $p < .01$ *** $p < .001$

중에서는 직접적인 예언변인이지만 우울의 경우 직접적인 예언 변인이 아니며, 역기능적 태도와 생활사건 경험의 상호작용 점수도 다른 변인에 더한 추가 설명력이 없었다. 이는 전통적인 중재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나, 자기개념이 예언변인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일 수 있으며, 중재가설은 뒤에서 다시 검증될 것이다. 반대로 생활사건 경험의 경우는 우울에 대해서는 유의한 설명변인이지만 편집증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3. 역기능적 태도의 중재가설과 자동적 사고의 매개 가설 검증

전통적으로 우울증의 인지이론에서 가정되어 온 역기능적 태도의 중재가설과 자동적 사고의 매개가설을 우울과 편집증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해 검증했으며, 편집증의 경우 가설 검증이나 재검증보다는 탐색적인 수준에서 접근하였다.

1) 역기능적 태도의 중재효과 검증

역기능적 태도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편집점수와 우울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생활사건 경험치와 역기능적 태도점수, 생활사건경험치와 역기능적 태도점수의 상호작용 점수를 순서대로 투입해 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표 6, 7에 제시하였다. 표 6, 7을 보면, 편집성향과 우울 모두에서 세 투입변인 모두 중다상관계수(R)와 예언변량(R²)에 대한 변량분석이 유의했다. 이는 역기능적 태도의 중재효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렇지만 생활사건 경험치, 그리고 생활사건 경험치와 역기능적 태도의 상호작용 점수의 경우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못하고, 특히 상호작용 점수의 경우 추가설명량도 편집성향의 경우 0.10%, 우울의 경우 0.09%에 불과해 그 유의도가 매우 미약했다. 따라서 역기능적 태도의 중재가설은 편집성향과 우울 모두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

2)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표 8, 9

표 6. 편집성향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의 중재효과 검증

예언변인	R	R ²	F	B	SE B	Beta	T
생활사건경험	.2332	.0544	18.51***	-.02	.21	-.03	-.09
역기능적 태도	.4271	.1825	35.82***	.13	.04	.31	3.26**
생활사건경험 X 역기능적태도	.4284	.1835	23.97***	-.001	.002	.22	.64

** $p < .01$ *** $p < .001$

표 7. 우울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의 중재효과 검증

예언변인	R	R ²	F	B	SE B	Beta	T
생활사건경험	.3564	.1270	46.57***	.06	.15	.13	.39
역기능적 태도	.4347	.1890	37.16***	.06	.03	.20	2.12*
생활사건경험 X 역기능적태도	.4358	.1899	24.85***	.001	.001	.21	.60

* $p < .05$ ** $p < .01$ *** $p < .001$

와 같이 각각 세 개의 독립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8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생활사건경험치는 자동적 사고와 편집성향을 각각 유의하게 예언했지만, 편집성향에 대해 자동적 사고에 부가적인 설명력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편집성향의 경우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생활사건 경험치가 편집증상의 유의한 예언변인이 아니라는 앞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반면,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울에 대해서는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4. 편집, 우울, 편집-우울, 통제 집단의 특성 비교

부가적 분석으로 이훈진(1997), Chadwick과 Trower (1996)의 편집증 구분을 재검증하기 위해 편집 척도와 우울 척도 점수를 기초로, 편집, 우울, 편집-우울, 통제 집단을 선별해 집단차이 검증을 위한 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1) 성차

종속측정치들에서 성차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자동

적 사고, 우울 점수, 자기개념 점수에서 성차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우울하고[여 11.56, 남 9.06; $t(329)=3.27$, $p < .001$],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도 더 많았으며[여 29.50, 남 23.95; $t(320)=3.16$, $p < .01$], 자기개념도 더 부정적이었다[여 107.36, 남 110.67; $t(327)=-2.14$, $p < .05$].

2) 집단별 특성

우울 및 편집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한 네 집단(집단선발 기준은 '분석' 부분 참조)을 대상으로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종속측정치별 변량분석을 하였다. 네 집단간 상호 비교를 위한 사후검증 방법으로는 Scheffé 검증을 사용하였다. 집단별 성비를 보면, 편집 집단은 남 10, 여 11, 우울 집단은 남 9, 여 10, 편집-우울 집단은 남 9, 여 12, 통제집단은 남 8, 여 13 이었다. 자동적 사고, 우울, 자기개념 상에서 성차가 있었으므로, 집단간에 남녀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차이가 없었다, $\chi^2(12)=2.93$, n.s. 또한 연령에서도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F(3, 78)=.75$, n.s. 본 연구에서 측정한 종속측정치들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간 차이검증 결과를 표 10에

표 8. 편집성향에 대한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인	예언변인	R	R ²	F	B	SE B	Beta	T
편집점수	생활사건경험	.2332	.0544	18.52***	.15	.04	.23	4.30***
자동적 사고	생활사건경험	.3425	.1173	42.79***	.37	.06	.34	6.54***
편집점수	1. 자동적사고	.5006	.2506	107.68***	.31	.03	.50	10.38***
	2. 생활사건경험			n.s.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우울에 대한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인	예언변인	R	R ²	F	B	SE B	Beta	T
우울점수	생활사건경험	.3564	.1270	46.57***	.17	.02	.36	6.82***
자동적 사고	생활사건경험	.3425	.1173	42.79***	.37	.06	.34	6.54***
우울점수	1. 자동적사고	.7171	.5142	338.69***	.29	.02	.67	16.48***
	2. 생활사건경험	.7269	.5284	178.72***	.06	.02	.13	3.10**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집단별 주요 측정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집단간 차이 검증 결과

측정치	편집 (N=21)	우울 (N=19)	편집-우울 (N=21)	통제 (N=21)	F
편집 척도	35.14(4.89) ^a	20.32(3.89) ^b	38.58(4.13) ^a	19.28(1.59) ^b	139.15***
우울 척도	7.00(3.89) ^a	19.63(3.34) ^b	22.29(3.74) ^b	6.71(1.15) ^a	134.46***
자동적 사고질문지	24.40(12.1) ^a	39.53(13.0) ^b	49.86(16.4) ^b	14.76(7.18) ^c	29.59***
역기능적 태도척도	133.67(24.2) ^{ab}	145.95(19.3) ^a	153.10(28.6) ^a	122.84(19.2) ^b	6.50***
자기개념 척도	109.57(11.3) ^{ac}	102.33(11.1) ^{ab}	94.95(9.86) ^b	114.86(11.3) ^c	12.14***
생활사건경험질문지	23.40(14.4) ^{ab}	31.58(17.1) ^a	34.43(13.7) ^a	19.63(13.3) ^b	3.47*

영문 위첨자는 Scheffé 검증에 의한 집단간 평균치 차이 여부를 나타냄. $p < .05$

(위첨자 중 공통되는 문자가 없는 집단간에는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임)

괄호 안은 표준편차

* $p < .05$ ** $p < .01$ *** $p < .001$

제시하였다.

표 10을 보면, 편집 집단과 편집-우울 집단은 자동적 사고, 자기개념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편집-우울 집단은 편집 집단보다 자기개념이 더 부정적이었고,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더 많았다. 편집-우울 집단은 우울집단보다 자동적 사고, 역기능적 태도가 높고 자기개념도 더 낮았지만 통계적인 차이에는 이르지 못했다. 편집 집단의 경우, 통제 집단보다는 자동적 사고도 많았고, 역기능적 태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다소 높았다(133.67 vs 122.84). 따라서 편집 집단과 우울이 동반된 편집 집단이 자기개념과 귀인양식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이훈진(1997), Chadwick과 Trower(1996)의 연구 결과가 부분적으로 재검증 되었으며, 이 두 집단을 구분할 필요성, 그리고 그 이해와 치료적 접근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역기능적 태도와 자동적 사고가 우울과 편집증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였다. 우울과 편집증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상이라는 선행연구들(이훈진, 1997; Bentall, Kinderman,

& Kaney, 1994; Candido & Romney, 1990; Chadwick & Trower, 1996; Fear, Sharp, & Healy, 1996; Zigler & Glick, 1988)의 결과를 재검증하고, 그동안 이들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지만 우울증의 인지적 취약성 요인으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역기능적 태도와 자동적 사고가 편집증에서도 주요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 함의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상관 및 부분상관 분석 결과, 자동적 사고는 두 증상 모두와 관련되나 우울과의 상관이 더 컸으며, 역기능적 태도는 직접적인 관련성 면에서 우울보다는 편집성향과의 관련성이 더 컸다. 생활사건 경험치의 경우 편집증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었으며, 우울증과 직접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개념의 경우 두 증상 모두와 유의한 상관 및 부분상관을 나타내, 두 증상 모두에서 주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은 우울과 편집증을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 회귀분석과, 역기능적 태도의 중재효과 검증,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중다 회귀분석 결과 자동적 사고와 자기개념은 두 증상 모두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우울과 편집 점수의 영향을 상호 통제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역기능적 태도와 생활사건 경험은 두 증상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했는데, 역기능적 태도의 경우 편집

중에서는 직접적인 예언변인이었지만 우울의 경우 직접적인 예언 변인이 아니었으며, 역기능적 태도와 생활사건 경험의 상호작용 점수도 다른 변인에 더한 추가 설명력이 없었다. 이는 전통적인 중재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지만, 자기개념이 예언변인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반대로 생활사건 경험의 경우는 우울에 대해서는 유의한 설명변인이지만 편집증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이는 편집증이 생활사건에 영향받지 않는 비교적 지속적인 특성인 반면, 우울은 경험의 영향을 받는 정서상태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기능적 태도가 우울보다 편집증과 더 높게 관련되는 것도 역기능적 태도가 심층 수준의 인지(Dobson & Shaw, 1986; Hollon & Bemis, 1981; Kwon, 1992)이기 때문에 인지적 증상인 편집증과 더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역기능적 태도의 중재가설은 우울, 편집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변인으로서의 그 유의도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고 회귀계수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Kwon(1992)의 결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인데, 김은정과 오경자(1994)의 연구에서 우울증상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역기능적 태도와 자동적 사고 같은 인지적 요인보다는 반복적 행동 등 행동적 요인으로 나타난 점, 그리고 Robins와 Block(1989), Robins, Block, & Peselow(1990)도 역기능적 태도의 중재 가설 지지에 실패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적인 검증과 교차타당화가 필요하다. 더구나 본 연구결과, 부분상관과 중다회귀분석에서 역기능적 태도가 우울보다는 편집증과 더 관련되는 것으로 나온 것도 역기능적 태도가 우울증의 독특한 인지적 취약성 요인이라는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동적 사고의 매개가설은 우울에서만 지지되어, 선행 연구 결과가 반복검증 되었으며, 우울증에 독특한 현상임이 시사되었다. 그러나 이는 자동적 사고가 우울과 밀접히 관련된 부정적 자기진술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Hollon & Kendall, 1980)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부분상관과 회귀분석 모두에서 생활사

건 경험이 편집증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생활경험에 의해 활성화된다고 가정되는 자동적 사고가 편집증에서는 매개역할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동적 사고의 내용을 편집증과 관련된 것으로 수정해서 다시 검증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Snyder, Crowson, Houston, Kurylo 및 Poirier(1997)가 개발한 적대적 자동적 사고 척도(Hostile Automatic Thoughts Scale: HAT Scale)이다. 적대감과 분노는 편집증의 핵심 특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APA, 1994; Fenigstein, 1994; Kennedy, Kemp, & Dyer, 1992; Taylor, 1985), 적대적 자동적 사고가 편집증에서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집단비교에서 편집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는 자동적 사고가 높았으나, 편집-우울 집단보다는 낮았고, 자기개념과 역기능적 태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편집증 연구에서 우울이 동반된 집단과 우울이 동반되지 않은 집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 즉 우울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훈진(1997), Chadwick과 Trower(1996)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신병리 연구에서는 특정 증상 하나만을 분리해 고려하기 보다는 그 증상과 상관이 높은 다른 증상을 고려 또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그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우울과 편집증이라는 상호 관련성이 높은 증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데 기여했고, 앞으로 두 증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임상적 우울과 편집장애에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또한 교차타당화를 통해 가설검증적이고 확인적인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가 탐색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심각한 제한점이며, 그에 따라 연구와 분석이 경제적이고 명료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임상 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치료와의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언급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적대적인 자동적 사고 등 관련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

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1994).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구조. *심리과학*, 3, 100-111.
- 김은정, 오경자(1994). 우울증상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인지 및 행동요인들: 3개월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 1-19.
- 서수균(1996). 자기집중적 주의, 실제 자기개념 및 자기안내자 선호성을 고려한 자기불일치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 미발표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원두리(1992). 역기능적 태도와 스트레스 사건이 우울감 증가에 미치는 영향. 미발표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원호택, 이훈진(1997). 편집성향 집단의 자기개념과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2), 173-182.
- 이영호(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 모형을 통한 분석. 미발표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정균, 곽영숙, 이희, 김용식, 한진희, 최진욱, 이영호(1986). 한국정신장애의 역학적 조사연구(I): 도시 및 시골지역의 평생유병율. *서울의대정신의학*, 11(부록), 121-141.
- 이훈진, 원호택(1995a). 편집성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83-94.
- 이훈진, 원호택(1995b). 자기개념과 편집증적 경향. *심리과학*, 4(2), 15-29.
- 이훈진(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미발표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Abramson, L. Y., Alloy, L. B., & Metalsky, G. I. (1988). The cognitive diathesis-stress theories of depression: Toward and adequate evaluation of theories' validities. In L. B. Alloy(Ed.), *Cognitive Processes in Depress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Abramson, L. Y., Metalsky, G. I., & Alloy, L. B. (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 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 358-37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arnett, P. A., & Gotlib, I. H. (1990).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ve symptoms among men and wome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7-61.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antional University Press.
- Beck, A. T., Brown, G., Berchick, R. J., Stewart, B. L., & Steer, R. A. (1990). Relationship between hopelessness and ultimate suicide: A replication with psychiatric out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 190-195.
-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eck, A. R., Steer, R. A., Kovacs, M., & Garrison, B. (1985). Hopelessness and eventual suicide: A 10-year prospective study of patients hospitalized with suicidal ideation. *Americal Journal of Psychiatry*, 142, 559-563.
- Bentall, R. P., Kinderman P., & Kaney, S. (1994). The self, attributional processes and abnormal beliefs: Towards a model of persecutory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31-341.
- Candido, C. L., & Romney, D. M. (1990). Attributional style in paranoid vs. depressed patient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3,

- 355-363.
- Chadwick, P. D. J., & Trower, P. (1996). Cognitive therapy for punishment paranoia: A single case experi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351-356.
- Dobson, K. S., & Breiter, H. J. (1983). Cognitive assessment of depressi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ree measur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107-109.
- Dobson, K. S., & Shaw, B. F. (1986). Cognitive assessment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13-29.
- Eaves, G., & Rush, A. J. (1984). Cognitive patterns in symptomatic and remitted unipola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31-40.
- Fear, C., Sharp, H., & Healy, D. (1996). Cognitive processes in delusional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61-67.
- Fenigstein, A. (1994). Paranoia. In V. S. Ramachandran(Eds.).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V. 3). San Diego: Academic Press.
- Hammen, C., Ellicott, A., Gitlin, M., & Jamison, K. R. (1989). Sociotropy/autonomy and vulnerability to specific life events in patients with unipolar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154-160.
- Hammen, C., Jacobs, M., Mayol, A., & Cochran, S. (1980). Dysfunctional cognitions and the effectiveness of skills and cognitive-behavioral assertion train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685-695.
- Harrell, T. H., & Ryon, N. B. (1983). Cognitive-behavioral assessment of depression: Clinical validation of the 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721-725.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65.
- Hollon, S. D., & Bemis, K. M. (1981). Self-report and the assessment of cognitive functions. In M. Hersen and A. S. Bellack(Ed.), *Behavioral assessment: A practical handbook*(2nd ed.). (pp. 125-174). New York: Pergamon Press.
- Hollon, S. D., & Kendall, P. C. (1980). Cognitive self-statements in depression: Development of an 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 383-395.
- Hollon, S. D., Kendall, P. C., & Lumry, A. (1986). Specificity of depressotypic cognition in clinical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52-59.
- Kaney, S., & Bentall, R. P. (1989). Persecutory delusions and attributional style.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2, 191-198.
- Kaney, S., & Bentall, R. P. (1992).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serving bia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0, 773-780.
- Katschnig, H., Pakesch, G., & Egger-Zeidner, E. (1986). Life stress and depressive subtypes: A review of present diagnostic criteria and recent research results. In H. Katschnig(Ed.), *Life events and psychiatric disorders: Controversial issues*(pp. 201-245).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ller, K. E. (1983). Dysfunctional attitudes and the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7, 437-444.
- Kennedy, H. G., Kemp, L. I., & Dyer, D. E. (1992). Fear and anger in Delusional(Paranoid) disorder: The association with violenc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0, 488-492.
- Kuiper, N. A., Olinger, L. J., & Martin, R. A. (1988).

- Dysfunctional attitudes, stress, and negative emo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533-547.
- Kwon, S-M. (1992).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Queensland.
- MacKinnon, R. A., & Michels, R. (1971). *The psychiatric interview in clinical practice*.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 Manschreck, T. C. (1996). Delusional Disorder: The recognition and management of paranoia.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7(suppl 3), 32-38.
- Metalsky, G. I., Halberstadt, L. J., & Abramson, L. Y. (1987). Vulnerability to depressive mood reactions: Toward a more powerful test of the diathesis-stress and causal mediation components of the reformulated theory of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386-393.
- Miller, I. W., Norman, W. H., & Keitner, G. I. (1990). Treatment response of high cognitive dysfunction depressed inpatients. *Comprehensive Psychiatry*, 30, 62-71.
- Olinger, L. J., Kuiper, N. A., & Shaw, B. F. (1987). Dysfunctional attitudes and stressful life events: An interactive model of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25-40.
- Oliver, J. M., & Baumgart, E. P. (1985).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 to depression in an unselected adult popul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9, 161-167.
- Robins, C. J., & Block, P. (1988). Personality vulnerability,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A test of a specific interaction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47-852.
- Robins, C. J., & Block, P. (1989). Cognitive theories of depression viewed from a diathesis-stress perspective: Evaluation of the models of Beck and of Abramson, Seligman, and Teasda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 297-313.
- Robins, C. J., Block, P., & Peselow, E. D. (1990). Cognition and life events in major depression: A test of the mediation and interaction hypothes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299-313.
- Robins, L. N., Helzer, J. E., Weissman, M., Orvaschel, H., Gruenberg, E., Burke, J. D., & Reiger, D. A. (1984). Lifetime prevalence of specific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three sit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1, 949-958.
- Rush, A. J., Weissenburger, J., & Eaves, G. (1986). Do thinking patterns predict depressive symptom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225-236.
- Segal, Z. V., Shaw, B. F., Vella, D. D., & Katz, R. (1992). Cognitive and life stress predictors of relapse in remitted unipolar depressed patients: Test of the congruenc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26-36.
- Simons, A. D., Gordon, J. S., Monroe, S. M., & Thase, M. E. (1995). Toward an integration of psychologic, social, and biologic factors in depression: Effects on outcome and course of cognitive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369-377.
- Snyder, C. R., Crowson, J. J., Houston, B. K., Kurylo, M., & Poirier, J. (1997). Assessing hostile automatic though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HAT sca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477-492.
- Spangler, D. L., Simons, A. D., Monroe, S. M., &

- Thase, M. E. (1993). Evaluating the hopelessness model of depression: Diathesis-stress and symptom compon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92-600.
- Spangler, D. L., Simons, A. D., Monroe, S. M., & Thase, M. E. (1997). Response to cognitive-behavioral therapy in depression: Effects of pretreatment cognitive dysfunction and life str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568-575.
- Stiles, T. C., & Götestam, K. G. (1989). The role of automatic negative thoughts in the development of dysphoric mood: An analogue experi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 161-170.
- Taylor, P. (1985). Motives for offending among violent and psychotic me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491-498.
- Teasdale, J. D., & Fennell, M. J. V. (1982). Immediate effects on depression of cognitive therapy interven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 343-352.
- Thase, M. E., Simons, A. D., & Reynolds, C. F. (1996). Abnormal electroencephalographic sleep profiles in major depression: Association with response to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99-108.
- Zigler, E., & Glick, M. (1988). Is paranoid schizophrenia really camouflaged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43*, 284-290.

Dysfunctional Attitudes, Life Events, and Automatic Thoughts in Paranoia and Depression

Hoon-Jin Lee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utomatic thoughts, life events experience, and self-concepts in depression and paranoia. The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the 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 the Life Events Experience Questionnaire, the Paranoia Scale,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the Self-concept Scale were administered to 331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utomatic thoughts and the self-concepts were directly related to depression and paranoia. But, automatic thoughts more highly related with depression than paranoia. The life events experiences were exclusively related to depression. The dysfunctional attitudes were more highly related to paranoia than depression. The moderating hypothesis of dysfunctional attitudes was weakly confirmed in both paranoia and depression. And, the mediating hypothesis of automatic thoughts was exclusively confirmed in depression. The sugges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study were discussed.